

# 광주·전남 중국 수출 ‘뚝’... “교역 변화 모색해야”

## 무협 ‘중 시장 전략 컨설팅’ 세미나

광주무역수지 적자폭 1년새 60% ↑  
중 내부시장 변화, 전략 수정 불가피  
차이나데스크 “FTA 활용 높여야”

광주·전남지역 기업들의 대중국 수출이 급감하면서 무역수지 적자폭도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수출 반등을 위해서는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무역 동향을 이해하고 전문기관의 업종별 컨설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FTA종합지원센터의 대중국 진출 전담 지원 기구인 차이나데스크와 함께 지난 22일 광주무역회관에서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시장의 정책변화 및 인증, 통관, 물류, 지적권 등 분야별 전략 컨설팅을 다루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의 대중국 수출은 전년 대비 17.1% 감소한 9억6000만 달러에 불과했으며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폭은 지난 2021년 5억6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9억 달러로 무려 60.7% 증가했다.

전남지역 수출액 역시 지난해 96억 달



지난 22일 광주무역회관에서 개최된 중국 시장의 정책변화 및 인증, 통관, 물류, 지적권 등 분야별 전략 컨설팅을 다룬 세미나에서 차이나데스크 진실 팀장이 지역의 대중국 수출 지원 사업 활용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제공

러로 전년 대비 13.9%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77억 달러 흑자로 2021년 대비 21.1% 감소했다.

이와 같은 지역의 대중국 수출 부진 및 적자 지속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협회는 서울에서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 최근 대중국 수출의 중요 정보 제공과 현장 집중 컨설팅을 목표로 지역 내 무역업계, 공공기관 관계자 40여명을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FTA종합지원센터의 대중국 진출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차이나데스크의 진실 팀장은 이날 중국 지원사업을 소개하며 최근 중국 FTA활용 동향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팀장은 “중국 수출에 있어 품목별, 업종별로 한중 FTA를 활용할지, 최근 발효된 RCEP을 활용할지에 따라 실익의 엇갈림이 큰 상황”이라며 “차이나데스크의 다양한 컨설팅 및 설명회 등을 통해 FTA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중 FTA 및 RCEP에 관해 설명한 차이나데스크의 신승원 관세사 역시 “수출품의 현지 관세율과 양허 유형을 반드시 확인하고 인증수출자 인증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며 “RCEP 연결 원산지증명서, 특례 기준 등을 전문상담을 통해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최근 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해 큰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중국 내부의 시장을 이해하고 수출 및 교역 방법에도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중국의 정책 동향과 주요 키워드를 강연한 조선대학교 김학림 교수는 중국 내부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동 부유와 질적 성장을 위한 내수 확대, 디지털 경제 등 생산요소 효율화, 공급망 안정, 지역통합 발전, 녹색 성장 등을 정책 키워드로 설명했다.

김 교수는 “최근 대중국 수출 적자 확대는 중국 내 교역의 구조적 변화 탓으로 우리 수출 전략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중국의 수입 증가 품목으로 수출을 전환하고 상호 보완적 교역관계에서 수평적 원원 관계로 대중국 산업내 무역을 활성화, 하이테크 및 자동차 등 주력 분야의 경쟁력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국의 통관 지연사태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설명도 이뤄졌다.

최인성 관세청 해외통관지원팀 주무관은 “이유 없는 통관 지연이나 과도한 서류 요구, 자의적 품목 분류, 부당 조사나 과세 처분 등 해외통관 분쟁은 국가 간 분쟁 또는 관세 당국 간 이슈로 개별 기업의 대응이 어렵다”며 “통관분쟁 시 관세청, 세관측에 연락해 국제 네트워크 및 전문가 파견 등 적법하고 전문적인 채널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소속 차이나데스크 김학길 관세사도 “코로나 등 바이러스로 인한 물류 정체, 국가 간 분쟁 격화, 물류 대란 등으로 최근 대중국 및 중국 경유 물류 지연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등록해 화물의 수입검사 감축, 우선통과 및 서류심사 간소화 등 혜택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고 제안했다.

이동원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대중국 수출 부진 대응과 지역 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컨설팅과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분야별 정보와 광주·전남 중국 수출 현황 등을 보고 서로 정리해 지역 내 많은 기업과 수출유관기관에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 지역 로컬 기업, 투자사 날개 달고 ‘훨훨’

### ‘2023 Be 글로벌 히어로’ 성료 해외 펀드와 투자의향서 체결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있는 로컬 기업 발굴을 위한 ‘2023 Be 글로벌 히어로’를 통해 광주·전남지역 기업들이 임팩트·로컬펀드 운용사와 투자의향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25일 한국엔젤투자협회 호남권 엔젤투자허브에 따르면 ‘2023 Be 글로벌 히어로’는 지난달부터 2개월에 걸친 강연과 로컬 현장탐방, 워크숍 및 예선 IR을 진행하고 지난 22일 광주에너지파크에서 본선 IR을 개최했다. (사진)

‘2023 Be 글로벌 히어로’는 지역 자원과 문화 특성 등을 소재로 혁신적 아이템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수익을 내는 ‘로컬크리에이터(지역가치창업가)’ 중에서 임팩트펀드 및 로컬펀드 투자 등을 통해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는 로컬 기업을 선발, 지역 성공사례로 만들어 내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시, 한국엔젤투자협회가 주최했으며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광주농식품창업벤처센터, 전남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전남대학교링크플러스사업단, 임팩트 투자사인 mysc(미스크)가 공동 주관했다.

본선 IR에서는 지역 과일과 수산물을 원

재료로 하는 ‘디파이낸스’와 ‘삼면이바다’가 말레이시아 국부펀드 등 해외 펀드 운용사이자 글로벌 진출 액셀러레이팅에 특화된 비전벤처파트너스로부터 투자의향서를 받았다.

또 곡물을 원재료로 글로벌 진출에 도전하는 ‘오트릿’과 ‘곡물공간’은 TIPS(민관협력형 기술창업프로그램) 운영사이면서 로컬기업에도 꾸준히 투자하고 있는 전남대학교기술지주회사로부터 투자의향서 대상기업으로 선정됐다.

투자의향서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곳에 대해서는 투자사와 로컬기업 상호 간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투자 검토뿐 아니라 글로벌 진출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킹과 밀착 멘토링을 통해 다양한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주어진다. **곽지혜 기자**

### 제 1073회 나눔로또

당첨번호	2등 보너스 번호	
6 18 28 30 32 38	15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
1등	6개 숫자 일치	23억4522만원
2등	5개 숫자+ 보너스 숫자 일치	6934만원
3등	5개 숫자 일치	143만원
4등	4개 숫자 일치	5만원
5등	3개 숫자 일치	5000원

## 정의선 현대차회장, 하노이 국립대서 산학협력 모색

### “해외석학 초빙 돕겠다” 제안 인재 육성... 현지채용 확대

현대차그룹은 정의선 회장이 최근 베트남 하노이 국립대학교 호아락 캠퍼스에서 레 꾸언(Le Quan) 하노이 국립대 총장을 만나 미래 혁신 인재 육성의 필요성과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현지 미래 인재를 육성, 전문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하노이 국립대는 세계 대학 평가 기관 등에서 베트남 최고 대학으로 꼽히는 명문 대학으로,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한국 기업 및 대학들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으며 현대차 역시 향후 베트남 사업 확대에 우수한 인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산학 협력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정 회장은 레 꾸언 총장과 면담에서 현대차그룹이 자동차 사업을 통해 베트남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설명했으며 레 꾸언 총장 역시 베트남 자동차산업은 물론 경제 산업 발전에 체계적인 전문 기술 인재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정 회장은 “하노이 국립대와의 자동차 산업 산학 협력을 통해 우수한 미래 혁신 인재 육성을 희망한다”며 “현대차그룹뿐만 아니라 많은 협력사들이 베트남의 우수 인재를 채용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공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왼쪽)과 레 꾸언 하노이 국립대 총장이 지난 23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국립대학교에서 미래 혁신 인재 육성의 필요성과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뒤 아이오닉 5 모형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제공**

극적으로 베트남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 회장과 레 꾸언 총장은 ‘현대차그룹-하노이 국립대 협력센터’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정 회장은 면담 말미에 현대차그룹의 주선으로 해외 대학의 유명 석학을 초빙해 하노이 국립대에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면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는 깜짝 제안을 했다.

레 꾸언 총장은 이에 대해 “하노이 국립대는 많은 국제 학생을 유치하고, 또 우리

학생을 해외로 내보내는 미션이 있다”며 “현대차그룹의 도움으로 해외 석학이 우리 학교에서 강의할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베트남 자동차시장에서 지난 5월까지 2만2903대를 판매하며 도요타를 제치고 판매 1위에 오르는 등 선두권을 공고히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현대차 베트남 생산 합작법인 HTMV 2 공장을 준공하며 현지 생산능력이 10만대로 증가한 만큼 판매를 더욱 확대해 베트남 시장에서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곽지혜 기자**

## 광주은행 ‘거래는 비대면 마음은 맞대면’ 이벤트 성료

광주은행은 최근 ‘거래는 비대면 마음은 맞대면’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하고, 당첨 고객 55명에게 경품을 비대면으로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5월 2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진행한 ‘거래는 비대면, 마음은 맞대면’ 이벤트는 비대면 채널을 통해 이벤트 대상상

품을 월 10만원 이상 가입하고, 광주은행 스마트뱅킹 앱(APP)을 통해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추첨을 통해 55명을 선정했다.

이번 이벤트는 30일간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직접 경품을 선택해 응모할 수 있다는 점에 인기를 끌기도 했

다. 이에 더해 비대면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벤트의 취지에 발맞춰 기존의 경품 전달식을 진행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경품을 전달했다.

추첨을 통해 세라젠 파워제 M2 1명, 아이패드 1명, 다이슨 에어랩 1명, 롯데호텔 통합 숙박권 1명, 배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케이크 31명, 순천만정원박물관 티켓 20명, 총 55명에게 경품을 전달했다.